

벤투호의 '원두재 시프트'가동했지만 '빌드업 속제'만 남겼다

한국, 유럽 원정서 4실점 '수비 불안' 노출

김민재·김영권 부재 속 원두재 수비수 물음표

빌드업 축구를 선호하는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멕시코전에 이어 또다시 '원두재 시프트'를 가동했지만, 이번에도 속제만 남겼다. 한국은 1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체스도르프의 BSFZ 아레나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 황의조(보르도)의 연속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 15일 멕시코와 유럽 원정 첫 경기에서 2-3 아쉬운 역전패를 당한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미쳤던 500승 달성에 성공했다. 또 지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0-1 패배도 설

욕했다. 벤투호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치른 브라질과 평가전 이후 1년 만에 떠난 해외 원정에서 1승1패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소속팀 프랑스 리그앙 지롱댕 보르도에서 이번 시즌 끝 짐복 중인 공격수 황의조가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득점 공동 1위(8골)인 손흥민은 특급 도우미로 변신해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입단 후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 황희찬도 카타르전서 역대 대표팀 최다시간(16초) 득점을 기록하며 모

처럼 환하게 웃었다.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공격과 달리 정통 센터백이 이번 소집에서 제외된 후방 수비는 멕시코전에 이어 카타르전도 한참을 헤맸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배이징궈안), 김영권(감바오사카), 박지수(광주FC)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정과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이번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다. 국가 이동시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5일 이상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팀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기존 선수들을 부를 수 없게 된 벤투 감독의 선택은 소속팀 울산 현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원두재의 중앙 수비수 이동이었다. 원두재가 울산에서 스리백의 중앙

수비를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지난달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과의 스페셜매치부터 원두재를 수비수로 활용 중이다. '원두재 시프트'는 후방 빌드업을 선호하는 벤투 감독이 발명이 좋은 원두재를 활용하기 위한 전술적인 장치로 해석된다. 이는 국가대표에서 영구 제명된 장현수(알힐랄)의 공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장현수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수비수였고, 원두재에게 비슷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멕시코전에서 스리백의 중앙 수비수로 뛴 원두재는 카타르와 경기에선 포백의 중앙 수비수를 맡았다. 전술 대형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최후방 수비수였다. 결과적으로 1실점으로 경기를 마쳤



지만, 원두재와 권경원(상주)으로 구성된 벤투호 수비는 보는 내내 불안했다. 구성원 골키퍼의 몇 차례 선방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골을 허용할 수도 있었다. 원두재를 활용한 빌드업도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대부분 의미 없는 백패스가 주를 이뤘고, 공격적으로 유의미한 찬스를 찾긴 매우 어려웠다. 오

히려 대인방어에 약점을 드러내며 카타르의 빠른 역습에 여러 차례 위기를 허용했다. 벤투 감독이 향후 김민재, 김영권 등이 복귀한 뒤에도 원두재를 센터백으로 기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김민재보다 물음표가 더 많아 보이기에 때문이다. 서선욱기자



1948년 런던올림픽 멕시코전.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 500승... '1948년 멕시코부터 2020년 카타르까지'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 원정 두 번째 경기에서 카타르를 꺾고 72년 만에 A매치 통산 500승 고지를 밟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체스도르프의 BSFZ 아레나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 황의조(보르도)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지난 15일 멕시코와 유럽 원정 첫 경기에서 2-3 아쉬운 역전패를 당한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미쳤던 500승 달성에 성공했다. 지난 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0-1 패배를 복수하며 카타르와의 역대 전적에서 6승2무3패로 우위를 이어갔고 11월 유럽 원정은 1승1패로 마무리했다. 1948년 출범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전까지 총 929회 A매치를 치러 500승229무201패(득점 1660·실점 855)를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의 A매치 첫 승 전보는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8년 런던올림픽 1차전 멕시코와 경기였다. 당시 한국은 5-3 승리를 거두며 대표팀 구성 이후 첫 A매치를 승리로 장식했다. A매치 100승은 1971년 뮌헨올림픽 아시아예선 대만전(8-0승)이었고, 200승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아시아예선 일본전(3-1승·쿠알라룸푸르)이었다. 1994년 창원에서 열린 카메룬과 친선경기(2-1승)가 300승째, 2006년 아시안컵 예선 대만전(8-0승·수원)이 400번째 승리였다. 아시아 호랑이로 명성을 떨친 한국 축구는 그사이 총 10차례 월

드컵 무대를 밟았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을 시작으로 1986년 멕시코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월드컵까지 9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다. 월드컵에 선 총 34경기를 치러 6승9무19패를 기록 중이다. 월드컵 첫 승은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폴란드전(2-0승)이고, 원정 월드컵 첫 승은 2006년 독일월드컵 토고전(2-1승)이다. 역대 최고 성적은 자국에서 열린 한일월드컵 4강이다. 한국 축구의 기적을 일군 가스 히딩크 감독은 A매치 총 38경기를 지휘하며 16승11무11패를 기록했다. 한국축구는 929회 A매치 동안 117개국과 만났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승리한 나라는 93개국이다. 이중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상대는 '숙적' 일본이다. 총 79차례 맞붙어 42승23무14패를 기록했다. 500승에는 '전차군단' 독일전 2승이 포함돼 있고 세계적인 강호 브라질, 이탈리아, 포르투갈,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등도 꺾었다. 당시 세계랭킹 1위를 이긴 적도 두 번 있는데, 1993년 3월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브라질전(1-0승)과 2018년 러시아월드컵 독일전(2-0승)은 이번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A매치 최다 연승은 1975년으로 당시 7월 메르데카경 팔레 아시아전부터 12월 킵스 미얀마전까지 '11경기' 연속 승리다. 역대 최다골차 승리는 2003년 아시안컵 예선 네팔전 16-0이고, 최다골차 패배는 1948년 런던올림픽 당시 스웨덴전 0-12다. 김민재기자

'넘버3' GK 구성윤의 재발견...대타로 눈도장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 4실점했지만 선방쇼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을 통해 1년 만에 해외 A매치 일정을 마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골키퍼 구성윤(대구)의 재발견은 값진 성과로 남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체스도르프의 BSFZ아레나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 황의조(보르도)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 엔체스도르프의 BSFZ아레나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황희찬(라이프치히), 황의조(보르도)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구성윤은 대타로 선 골문에서 기대

에 부응했다. 멕시코전에서 과잉공세를 연이은 선방으로 잠재웠다. 특히 수비진의 빌드업이 불안정해 패스 실수로 인한 위기가 많았지만 구성윤은 집중력을 살렸다. 특히 헤수스 코르나와 일대일로 맞선 위기에서 손과 발로 두 차례 선방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후반 수비라인이 급격히 무너져 이 경기에서 3골을 허용했지만 벤투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기에 충분했다. 카타르전에서도 전반 22분 알라딘이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완벽한 기회를 잡아 왼발슛을 때렸지만 구성윤이 정확히 몸을 날려 실점 위기를 넘겼다. 구성윤은 이번 유럽 원정 이전에 A매치 출전이 2경기에 불과했다. 조현우, 김승규에 가려졌던 '넘버3' 골키퍼 구성윤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였다. 일본 리그에서 활약했던 구성윤은 올해 5월 K리그1(1부리그)로 무대를 옮겼다. 김민재기자

美 매체 "추신수 적은 돈으로 텍사스 복귀? 적합하지 않아"



2020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추신수(38)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텍사스 지역 매체인 델러스 모닝 뉴스는 18일(한국시간) "FA가 된 추신수가 적은 금액을 받아들이고 텍사스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6 5홈런 15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추신수는 현역 연장 의지가 강하다.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만큼 주전까지는 힘들지만, 현역에서는 지명타자와 대

타, 클러하우스 리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신수가 충분한 영입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델러스 모닝 뉴스는 추신수가 텍사스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델러스 모닝 뉴스는 "추신수는 100타석 이상 소화한 텍사스 타자 가운데 OPS(출루율+장타율)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올 시즌 OPS는 0.723으로 지난 시즌(0.826)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또 올 시즌 지명타자로 뛰었을 때 OPS는 0.60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신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플레툰 선수가 되고 있다. 추신수는 최근 3년 동안 경기력 저하 탓에 왼손 투수를 상대로 단 28타석만 소화했다"며 "2018년 이후 3년 동안 추신수는 좌완 투수를 상대로 타율 0.225, 출루율 0.318, 장타율 0.334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추신수가 적은 연봉을 받아들이고 텍사스와 재계약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한 델러스 모닝 뉴스는 "지명타자는 젊은 타자들에게 경력을 주려고 하는 팀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만약 텍사스가 플레툰으로 기용할 좌타자가 필요하다면 윌리 칼훈을 활용하거나 추신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데릭 디트리히와 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셔틀콕 천재' 안세영 삼성 생명行...광주시청팀 무산

도쿄올림픽 앞두고 내년 1월부터 1년 간 계약

'셔틀콕 천재' 안세영(광주체고3) 선수가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광주시청 실업팀 창단과 맞물려 진로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삼성생명을 택했고, 광주시청 팀 창단도 사실상 무산됐다. 17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안세영은 최근 삼성생명과의 입단 가계약을 체결하고, 정식계약은 12월에 맺을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년 간이다. 내년 7월 개막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안정적인 환경과 치우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삼성청년배 드림팀단을 인수해 새출발한 팀으로, 1993~1995년 전영오픈 여자복식에서 3연패를 거두고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을 목에 건 김영아 감독이 이끈다. '셔틀콕 천재' 외에도 '최연소 국가대표', '주니어스타', '배드민턴 천재소

녀' 등 여러 수식어가 붙은 안 선수는 지난해 국제대회 5관왕에 오르면서 세계랭킹도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9위지만, 정작 고향 광주에 실업팀이 없어 졸업 후 진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바 있다.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팀, 다른 지역보다는 고향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차세대 월드스타를 품은 팀이 없어 걱정이었고, 결국 고심 끝에 유명 실업팀을 택했다. 광주시는 여자 배드민턴팀 결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데다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용도 만만찮아 창단을 포기했고, 안 선수는 결국 탄탄한 기반을 지닌 실업팀에서 졸업 후 첫 선수생활을 하게 됐다. 김민재기자